

[AH Report] China

미생

1. Before 1978


등소평 시대에서 중국은 자국의 노동력을 바탕으로 세상에 가격경쟁력이 있는 물건을 공급한다면 세계시장에서 매력적일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1950이후의 농산물을 중심으로 하는 시대에서 교역을 하게 되는 시대는 국가에 대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전쟁을 중심으로 성장하였던 국가 엘리트 클래스에게는 생소한 개념이었을 것입니다. 국가의 이름에서 나오듯이 '세계의 가운데'라는 의미는 자신을 제외한 국가에 관심이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지 않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개혁 개방정책이 늦을 수 밖에 없었던 것은 현재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상태에서 큰 변화를 가져올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파이가 성장하더라도 그 파이의 지분이 불안하다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개혁개방(改革开放)이라는 문구는 1978년 12월에 11기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안이 되었고 이후의 역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 대상국가가 미국이라는 점에서는 알고 있지만 여기서 드는 의문점은 '왜 미국이 중국을 도와야 하는가'일 것입니다. 중국이 성장을 위한 수출을 하여 국가의 부르크 증가시키는 것은 중국의 사정일 뿐이고 미국이 사줘야 하는 이유는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972년 모택동과 닉슨의 미팅에 대하여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합니다.

중국과 소련은 공산주의·사회주의라는 비슷한 정치경제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것은 이데올로기에 대한 의미입니다. 결국 모든 시스템에서 수장은 누구인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이 있는 것입니다. 소련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자국이 상위에 있고 명령을 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원했고 중국은 반대로 마르크스-레닌 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원했던 것이지 소련의 속국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점이 장기간의 소련-중국의 불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모택동의 이러한 생각은 스탈린에게는 불안감을 가져오게 되었고 이것이 한국전쟁에도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역사 시간은 아니니 이를 짧게 설명하면 설립 이후 중국은 대만에 대한 군사적인 행동을 준비하고 있었으며 이때는 서구 열강들이 식민지국가에서 하나둘씩 군사를 철수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흐름을 이해하고 있었던 북한의 김일성 역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나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게 되면 공산국가가 확장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편으로 한반도에 서구 병력이 다시 진입하게 될 것을 걱정하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해방이후 북한과 남한의 군사력과 경제력은 북한이 더 우위에 있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김일성은 3일 이내에 전쟁을 끝낼 수 있으니 자신이 남한을 공격하겠다고 중국에게 보고를 하였고 모택동은 이렇게 되는 경우 역으로 대만에 서구열강의 군사배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이후에 김일성은 소련의 스탈린에게 관련 내용을 이야기 하였고 스탈린은 이러한 기회에 미국과 중국의 전면전을 유도하여 양국가의 사이를 흔들어 둘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공격으로 시작된 전쟁은 우리가 알고 있는 흐름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다만, 전폭적으로 지원을 약속했던 소련은 없었고 그 공백을 대만을 공격하기 위한 중국군이 메우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의 같은 기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Fact	
<p>H 한국경제</p> <p>마잉주 "한국전쟁으로 중국이 대만 공격 못했다"</p> <p>그는 "1950년부터 1953년까지 진행된 한국전쟁은 대만에 숨을 돌릴 기회... 마 총통의 이런 발언은 독립 추구 성향의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이 올해...</p> <p>Jun 26, 2020</p>	

암튼, 전쟁은 어쩔 수 없었지만 중국의 노선이 소련과 다르다는 점은 미국에게는 놓칠 수 없는 기회가 되었고 서로가 만나야 하는데 어떻게 만날지 모르는 상태가 됩니다. 왜냐면 만남에는 두가지의 문제가 있는데 (1) 누가 먼저 전화하는가 (2) 어디서 만나는가 라는 중요한 답변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열정적으로 구애를 하는 남성이 여성에게 전화해서 여성 집 문 앞에서 기다리는 것이 일종의 극한상태 같은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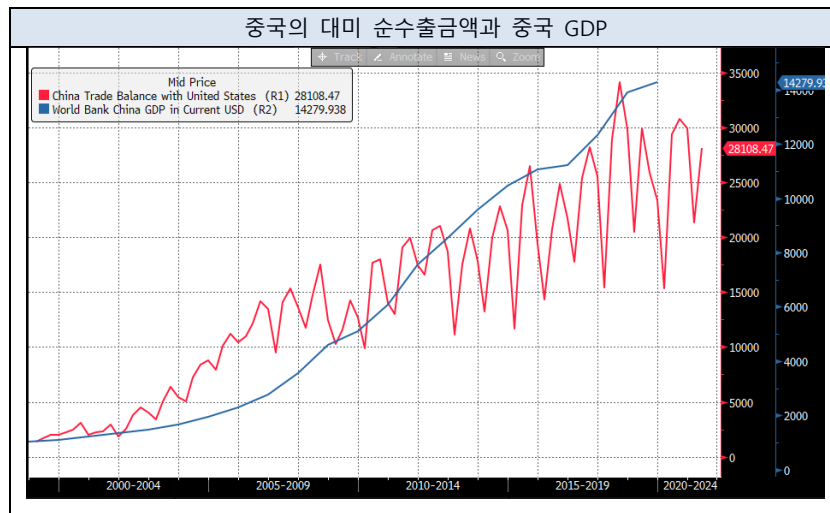
여기서 키신저는 한가지의 재미있는 형태를 제안하는데 그것이 '핑퐁외교'입니다. 탁구를 하면서 실제 실무진 미팅을 동시에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결과적인 형태는 모택동이 전화를 미국에 하고 닉슨이 중국에 가는 것으로서 서로의 체면을 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소련은 베트남을 통한 공산화를 지속하였고 이는 중국-베트남 전쟁으로도 연결되게 됩니다.

그래서 1978년 개방정책으로 중국은 독립 이후 두번째 Phase에 진입하게 됩니다.

2. Before 2009

이후의 중국은 놀라울 정도로 급격하게 변하게 됩니다. 중국은 물건을 만들고 이를 미국에 공급한다. 그래서 무역수지가 개선이 되고 경제가 성장한다는 그 그림은 중국에게는 통화량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고 미국은 발권을 더 할 수 있게 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차피 제공받는 물건에 대하여 나무에서 만들어낸 화폐를 지급하는 것이니 사실 이득은 미국은 가져가는 것이죠.

하지만 중국이 이를 이해하기 까지는 시간이 필요하였으며, 이는 금융의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은 중국의 엘리트층을 고려하여 볼 때 당연한 것입니다. 무엇이 어떻게 되었던지 중국의 경제는 성장하게 됩니다. 그것도 엄청나게 놀라운 속도로 말입니다.



사실 위의 차트는 2021.05 보고서에도 있는 차트인데 지금의 중국을 직관적으로 설명하는 차트입니다. 미국과의 무역흑자는 내부 잉여현금을 증가시키게 되고 이는 다시 통화승수에 의하여 경제를 성장시키는 트리거가 됩니다. 이제 어느정도의 경제규모를 이루었고 경제와 관련된 지식층도 늘었고 세상에 진실에 대한 이해를 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달러화폐에 대한 이해도 시작하였을 텐데 이를 극단적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된 리만브라더스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부동산에 대한 Leverage가 한계를 넘어가게 되면서 발생하게 된 이 사건은 미국에게는 정말 치명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자국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원래 굉장히 쉽습니다. 짐바브웨처럼 돈을 찍어내 버리면 화폐가격은 일정한 상태에서 자산가격이 증가하게 되니 부동산 문제가 일시에 해결되는 것이죠. 하지만 기축통화 국가가 아니라면 화폐의 상대적 가치 절하가 생기게 되어 경제시스템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미국은 자신의 통화가 기축이기 때문에 부동산가격만 상승하게 되고 달러의 인플레이션은 수출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인플레이션이 수출되었다는 문장은 기축통화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간단하게 비교를 하면 지구에서 종이로 만든 화폐와 화성이 만든 상품이 교환되게 된다면 지구에는 상품이 쌓이고 화성에는 나무로 만들어진 종이가 쌓이죠. 남는 장사죠. 이것이 인플레이션이 수출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국은 내가 그렇게 열심히 고생해서 미세먼지 마셔가면서 재화를 공급했고 힘들게 받은 미국의 달러를 땅에서 그렇게 만들어낸다는 것에 대하여 충격을 받습니다. 실제로 2009년 이후에 미국국채를 매도하고 유럽국채를 산다던지 다양한 방법으로 이에 대한 대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미국 경제가 소멸할 수도 있다는 기대감도 가지게 되었죠.

하지만

결과는 우리가 알고 그대로입니다. 달리는 강세가 되었고 미국국채가격은 올랐습니다. 여기서 중국은 Phase 2가 종료하게 됩니다. 노동력을 바탕으로 재화를 공급하고 이에 상응하여 종이를 받는 행위를 자신도 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3. Before 2018

오랜 준비를 하였고 엘리트층도 충분하게 있으며 틀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위안화를 남에게 파는 일반 남았죠. 그런데 내가 위안화를 팔아도 그 위안화 바로 본국으로 돌아온다면 '인플레이션이 수출'되지 않습니다. 타인에게 달러가 아닌 화폐를 사용하게 하는 것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중국 천년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한 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부릅니다.

일대일로(一帶一路)

항로가 개척되기 전에 유럽과 중국은 중간 중동지역에서 어마어마한 세금을 내면서 교역을 하였습니다. 오스만제국의 교역을 중지해서 망망대해로 배를 타고 나갔던 바스코다가마를 생각해보면 부모가 반대하는데 서로 교제를 하려고 하는 연인과 같은 모습으로 유럽과 인도-중국은 교역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때의 육로가 실크로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2014년에 이런 것을 시작하였을까요. 잘 연결이 되지 않는 이유는 이것이 교역을 위한 것이 아니고 '위안화'의 사용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주변국가에 위안화 부채를 빌려주고 이 돈은 다시 SOC 개발을 위하여 중국 건설사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물론 일부의 자금이 횡령도 되겠지만요. 중국 건설사는 중국인 인부를 고용해서 자국 국민에게 고용을 제공하게 됩니다. 미국의 마셜플랜이 본인들의 부채로 한 것이라면 중국의 일대일로는 자국의 화폐를 타국에 빌려주고 타국의 부채로 개발을 한 것이 다릅니다. 못됐죠. 하지만 구조적으로는 완벽했습니다. 그래서 전 시진핑의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1000년 중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일대일로의 진실	
<p> 글로벌이코노믹</p> <p>"중국 일대일로 관련 국가들, 부패로 3850억달러 '숨겨진 부채 ..."</p> <p>시진핑 국가주석은 2013년 중국의 자금 조달 및 인프라 건설에 대한 감점을 활용해 아시아, 아프리카 및 라틴아메리카 전역에 걸쳐 '공통의 이익을 위한...</p> <p>1 day ago</p>	

하지만 트럼프라고 하는 시대의 장수가 탄생하면서 이 그림은 박살나게 됩니다.

4. Before 2020

이 부분은 2021.03, 2021.05 보고서에서 써져 있으니 한번 찾아서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5. After 2021

사실 여기서부터가 본론입니다. 제가 글을 쓸 때 시간이 허용된다면 과거부터 Time line으로 정리를 하는데 그 이유는 현 시점에서 미래를 예측하거나 추정하는 것은 현재 시점의 '점'에서 출발하는 것보다는 과거에서 연결된 '선'을 통하여 추정하는 것이 더 확률을 높여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역사책을 읽을 때 연결된 선을 인지하는 것은 원래 세상이 그렇게 구성되었기 때문입니다. 1차대전은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었고 2차대전도 책을 읽다보면 '그럴 수 밖에 없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러한 연결선은 현재도 존재합니다. 보이지 않을 뿐이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중국은 러시아와의 연계를 통하여 미국에 들고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Nord-Stream II라는 당근을 받은 러시아는 미국에게 더 이상 강한 적대감을 표현하지 않으며 중국과 미국의 싸움을 스탈린의 시대에서 바라보던 것처럼 안방에서 TV로 보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2021.08 가장 중요한 시점에 해군기념일을 세인트 페테르부르크 (과거 레닌그라드)에서 하면서 모든 전투함을 북해로 끌고 간 것입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중국을 배려하였다면 날씨도 좋은데 블라디보스톡에서 했을 것입니다.

이제 중국은 노동력을 근간으로 하는 수출산업에 대한 미래가 없습니다. 그리고 유통에 대한 효율성을 개선하여 중간마진을 받으면서 광고를 하는 소위 '비생산적'인 산업에 대한 적대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국내에서 4차산업에 대하여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기 때문이고 이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흐름에서 디디추싱, 앤트그룹, 등의 적대감이 있는 것입니다. 자국이 만들어내는 물건이 경쟁력이 있더라도 수출이 어려울 수 있는데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쓰이는 것이라서 많이 고민이 드는 것이죠. 4차산업은 생각보다 정치에 매우 취약합니다. 핸드폰과 네트워크를 법적으로 끊어버리면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중국의 4차산업은 중국 밖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는 한국에서 카카오에게도 일어난 일이기도 하죠. 그리고 정치와 경제가 분리된다는 중국의 철학은 경제가 정치에게 복종을 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경제 플레이어가 반감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존속되기 어려운 철학이기도 합니다. 이는 마치 다음의 싸움과 같습니다.

- 내가 보호를 해줬으니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으니 나에게 복종해야지
- 해준 게 무엇이 있다고, 너무 올드해서 같이 있기 어렵다.

참고로 이는 부모와 자식의 대화이기도 합니다.

인도로 넘어가는 산업체제에서 중국은 내수 소비를 활성화하는 방법으로 선택하였고 이에 부동산과 교육비용을 줄이기 위한 선택을 하였는데 교육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부동산이라는 금융시스템의 근간을 흔들어버렸습니다. 헝다그룹은 이미 충분히 보셨을 것이니 추가적인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중국이 이를 원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위안화가 기축통화로 사용되어야 하며 수출이 감소하는 대신에 자국의 소비를 늘리고 에너지 수입통화를 위안화를 발행하여 해결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도 위안화가 안정적으로 지켜지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위안화가 기축통화가 되는 그림은 실제로 발생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2021.08에 전쟁을 하지 못함으로써 중국의 권위는 실제로 크게 훼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왜 외부와 싸움을 하면서 내부에서도 분란을 일으키는지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중국이라는 국가를 행정부와 국민으로 구분하여 본다면 국민들의 불만은 가득가득 쌓이게 될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만을 행정부에게 흐르게 하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에 이를 외부로 돌려야 할 것이며 현재 이런 과정이 중국에서는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정치적-경제적으로 공격을 받게 되는 국가는 바로 한국입니다. 한국은 중국기준으로 사실상 최대수입국이기 때문에 현재의 싸움에서 일방적으로 미국의 입장에서만 서 있는 모습을 싫어할 것입니다. 그러니 늦어도 6개월 이내에는, 불매운동으로 타격을 줄 수 있는 한국이 위험해질 수 있어 보입니다.

이제 중국은 내부 부동산에 대한 해소를 위하여 통화정책/재정정책을 사용해야 하는데 FED, ECB는 유동성을 축소하려고 하고 있으니 CNY가 위험해지게 될 수 있고, 재정정책을 위해서는 외부에서 채권을 매수해줘야 하는데 일본의 GPIF는 채권을 매수하지 않겠다고 하니 양쪽 정책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위험한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중국의 시장은 서서히 냉각되게 될 텐데, 그동안 잘살았던 동부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언젠가는'이라는 희망으로 이 고난을 견뎌냈던 서부사람들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클래스의 분노는 시간이 갈수록 커질 것입니다. 현재 시진핑 행정부가 '선부론'에서 '공동부유'로 가는 것은 그들의 분노가 자신의 행정부를 공격하지 않고 돈이 많은 사람들이 나눠주지 않아서 이렇게 된 것이라는 마지막 감정적인 보루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일종의 '문화 대혁명'이 발생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14억의 인구가 그렇게 쉽게 통제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러한 미래가 2021년 초에 결정된 것입니다.

중국의 현재 상태는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표면에 들어난 것은 실제 문제의 일부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전력난이라고 하는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의 이벤트'는 현재 중국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전력마저 부족하다면 어떻게 사회가 운영되고 있는지 걱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겨울은 생각보다 추울 수 있으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P.S. 한 투자자 분에게서 중국에 대하여 좀 메일로 정리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간단하게 적으려고 하다가 검사 검사 간단한 노트를 적게 되었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2021.10.01
오흥근